

국내가전업체 「미국 소니 TV와 맞대응」

— 저가형 소니 TV, 품질, 성능, A/S 등에 문제많아!



LG, 삼성, 대우 등 국내 TV관련업체와 한국전자산업진흥회(회장 : 구자학)는 최근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저가의 소니TV에 대한 수입증가 요인을 정밀 분석 해본 결과 가격, 성능, 품질, A/S 등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단순한 브랜드 이미지와 높은 외제선호 의식 때문인 것으로 보고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상품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로 하는 한편 불법제품에 대해서는 물증을 확보해 관계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

최근 외제 칼라TV의 수입은 '96년 65.4% 증가에 이어 '97년 2월까지도 119.2%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약 80%)은 염가형 모델(모

델번호에 S자)의 미국산 소니TV로 멕시코 등에서 일부(전원, 튜너 등)조립해 미국에서 완성된 제품으로 소니 국내 대리점을 통해 공급되고 있는 제품과는 가격, 품질, A/S 등에서 판이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저가의 소니TV는 실제 품질과 성능, 가격, A/S 등에서 국산보다 결코 유리한 점이 없으나 소비자들의 소니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와 강한 외제선호 의식에 의해서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저가 소니TV는 가격측면에서 보면 정상적인 루트로 수입되고 있는 소니제품과 현격한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다.

크 기	구 분	모 델 명	판매가격(천원)
29"	국내수입상 최근수입품	KV-27S20	680~720
	소니코리아 기존수입품	KV-27V25	900
34"	국내수입상 최근수입품	KV-32S25	1,200~1,300
	소니코리아 기존수입품	KV-32V25	1,500

이러한 현상은 저가 소니TV가 우리나라보다 임금이 훨씬 싼 멕시코, 중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생산한 부품을 미국 또는 멕시코에서 단순조립하여 미국의 저가시장 및 멕시코, 페루 등 남미시장 등을 겨냥하여 생산한 저가형 제품으로 브라운관의 대부분이 이미 4~6년전에 사용하던 것으로 수명이나 수평곡률도 국내제품에 크게 뒤질뿐만 아니라 국산제품과 달리 유통 및 A/S, 폐기시 회수처리 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같은 값으로 공급돼도 결코 싸다고

볼 수가 없다.

성능과 기능상의 차이를 보면 국산제품은 뉴스와 영화 등에서 영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선택하여 들을 수 있는 음성다중과 음향의 스테레오 기능이 가능하나 저가 소니제품의 경우에는 영어로 된 사용설명서에는 음성다중 및 스테레오 기능이 있다고 표시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와는 방송 방식의 차이로 실제로는 그러한 기능들이 작동 될 수 없다는 점이다.

구 분	미국형	국내형	비 고
스 테 레 오	○	×	가능하다고 표시는 되어 있으나 방식이 달라 실제로는 기능이 불가
음 성 다 중	○	×	
표 준 색 상	붉은색	푸른색	바로 적용이 부적합
전 원 장 치	110V	220V(겸용)	110V를 220V로 개조하여 형식승인을 취득

※ 이러한 것은 소비자가 구입시 확인치 않고 사용중에 불편을 호소하는 경향

소비자 이용편의 측면에서도 저가 소니TV는 사용설명서와 TV동작을 안내해 주는 안내자막(OSP)이 영문으로 되어 있어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브라운관에 정전기방지 코팅처리가 되어 있지않아 제품사용시 불편감을 느끼거나 브라운관 표면에 먼지가 달라 붙는 경향이 있으며 국산제품은 110V/220V 겸용의 프리볼트로서 어느전원 환경에서나 사용이 가능하나 저가형 소니제품은 220V 단전원으로 110V를 사용할 수 없는 불편성이 있다.

저가 소니TV의 더 큰 문제는 A/S, 폐가전품 회수 처리 등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문제로서 국산제품은 철저한 A/S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다 환경 및 재활용 사전평가, 폐가전품 무료 회수처리 등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나 수입 저가 소니TV는 영세 수입상들이 많이 수입, 공급하고 있어 A/S가 거의 불

가능하고 폐가전품 회수처리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아 A/S나 폐가전품 회수에도 소비자의 피해가 크게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강남의 한 소비자는 구입한 지 8개월만에 고장이 나 A/S요청을 하였으나 부품조달이 어렵다는 이유로 2개월 이상이 소요되었고 그나마도 전국의 10여개의 A/S점 밖에 없는 소니A/S센터에서는 정식 대리점의 보증서가 없는 제품에 대해서는 A/S를 보장해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격, 품질, 성능, A/S 등에서의 문제 이외에도 이들 저가 소니TV제품은 애초에 110V로 생산되었으나 수입업자들이 임의로 전원장치를 개조, 220V로 바꾸는 과정에서 전원코드 등의 연결부분 등에 불안정한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어 안전성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인기관의 품질

비교평가에서 안전상의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에 대해 리콜 등을 실시해야 하나 영세 수입상들이 도산하거나 자취를 감출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일부 제품의 경우는 수입상들이 멕시코에서 생산된 제품을 미국으로 원산지를 위조하여 표기한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국내 가전업체가 이에 대해 고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법적으로 표기도록 되어 있는 수입가격, 제조년월일 등이 표기되어 있지 않아 제품 구입시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따라 관련업체와 진흥회는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상품 정보제공은 물론 형식검정 및 통관과정에서 철저한 사후관리를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부문별한 수입을 근절키위해 원산지 표시위반, 가격표시 위반 수입상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하는 한편 업체로서도 원가절감 및 A/S강화 등을 통해 우리상품의 가치를 한층 더 향상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 저가 소니TV에 대한 기자회견 내용 □

1. 원산지 표시, 실정법(대외무역법) 위반

- 멕시코산→미국산
- 물증확보 고발 검토중

6. 유통 가격상의 문제

구	분	모 델 명	판매가격(천원)	비 고
29"	문제 소니TV	KV-27S20	680~720	- S자 모델이 문제의 TV
	소니코리아TV	KV-27V20	900	
34"	문제 소니TV	KV-32S25	1,200~1,300	
	소니코리아TV	KV-32V25	1,500	

- 가격 차이 요인
- 제조상 엽가 모델(정전기 발생 등)
- 유통, A/S, 서비스 가격 등 미반영

7. 기 타

- 제조년월, 가격 등 표시위반

2. 성능 및 기능상 문제

- 음성다중(영화, 뉴스 등)
- 스테레오
- 표시는 가능→실제는 불가 미주와 기술방식 차이
- 표준색상(미국산 : 붉은색, 국산 : 파란색) : 바로 적용이 곤란
- 소비자 반품 사례 빈발

3. 품질 불안

- 국내 형식검정을 위해 전원 회로 개조과정에서 불안정요소
- 110V→220V
- 연결 부문 하우징 (단락위험, 먼지가 쌓여 습도가 많을시 고압스파크)
- 브라운관에 정전기 예방 미조치(특수 코팅)
- 먼지 누적
- 접촉시 인체에 불쾌감

4. 소비자 서비스상의 문제

- 사용설명서 영문 또는 스페인어
- 작동표시기능 영문(리모콘, TV상)
- A/S상의 문제(소니코리아 A/S 미보증)
- 영세 수입상 이전 등
- 부품 미확보

5. 환경 및 재활용 대책상의 문제

- 폐가전품 회수·재활용 및 처리 대책 불비